

**본 문제해설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동국대학교에 있습니다.
본교의 서면 허락없이 무단으로 출판, 게재,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5년 동국대학교 모의 논술고사 문제 해설 (인문계_온라인)

[문제 1]

1. 출제의도

본 문제는 사회전체의 수준에서 사회제도를 분석·예측하는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또는 미래에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되는 사회변동 현상에 적용하여 변화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점검·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본 문제에 제시된 지문은 고등학교 교과서만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이미 학습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며, 혹은 학습하지 않은 학생들도 제시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정하여 교육과정의 정상화에 일정부분 기여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본 문항의 출제유형은 학생들이 기존에 형성된 사회이론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통해 사회변동에 적용하고,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을 예측해낼 수 있는 능력을 보고자 했기에 이해력 및 분석력, 그리고 적용력 및 대안제시 능력을 주안점으로 평가하는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2. 평가기준 및 평가주안점

(제시문 분석)

[가]는 사회전체의 수준에서 사회(제도)변동을 다루는 기능론적 관점에 대한 기술이다. 기능론적 관점에 따르면 사회의 구성요소들이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가면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때, 사회는 유지되고 존속된다는 입장이다.

[나]는 사회전체의 수준에서 사회(제도)변동을 다루는 갈등론적 관점에 대한 기술이다. 갈등론적 관점에 따르면 갈등을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보고 사회적 역할의 분배가 합의가 아닌 강제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입장이다.

[다]는 산업화 시대에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지식·정보 사회로 급속하게 바뀌는 과정을 사회변동 관점에서 간단히 제시한 글이다. 특히 즉경제현상의 기반이 되는 부가가치 창출의 수단이 자본에서 지식과 정보로 대체되는 시대적 흐름을 인적자원의 변화와 더불어 기술하고 있다.

(평가기준 및 평가주안점)

본 문제는 총 30점이 배정되어져 있으며,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은 2가지로 구성되어, 첫 질문에 20점, 두 번째 질문에 10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질문 A: 제시문 [가]와 [나]는 사회제도나 변동을 바라보는 상반된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다]에 나타난 "지식·정보 사회"로의 사회변화가 경제현상에 미칠 영향을 각각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기본적 답변: 지식·정보사회에서 생산된 정보는 고도로 발달한 네트워크와 함께 각종 정보화 기기의 보급으로 인해 대중의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더욱 용이하게 할 것이다.

답변요지 1: 제시문 [가]의 기능론적 입장에서 보면, 지식과 정보교류를 통한 이런 변화는 생산활동의 측면에서 효율성을 크게 증대시키며, 시장간 나아가 국가 간 경제 교류를 증대시키는 쪽으로, 나아가 생산자 중심의 시장이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모할 것이다. 즉 지식·정보 사회의 특징들로 인하여 산업사회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하게 되고, 이는 구성원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며, 소비자의 권익을 증대시킬 것이다.

답변요지 2: 제시문 [나]의 갈등론적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지식과 정보의 교류가 이루어 지기는 하지만 지식·정보가 모든 구성원의 정보 접근성을 동일하고 공평하게 향상시키지는 않는다. 지식·정보는 지역이나 계층, 지식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주어질 것이기에 그 격차에 따라 오히려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비전문가의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할 것이며, 시장간 또는 국가 간 무역 격차 확대로 나타나 시장·국가 간의 경제예속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평가기준: 제시문 가와 나를 적합하게 이해하고 이에 따라 지식·정보화 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위에 제시된 현상들을 기능론적 입장에서, 갈등론적 입장에서 서술하는 것에 각각 10점씩의 배점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경제현상의 변화도 기술하여 준다면 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질문 B: 이에 따라 갖추어야 할 인재요건들을 기술하여 보시오.

답변요지: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왜냐하면 단순직이나 사무직의 상당부분을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과 정보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전문직이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한 부분의 단순 전문가가 아닌 지식·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부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식·정보화 시대에서의 전문가란 특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실적 문제를 인식하는 감각, 논리적이며 체계적인 정보 및 지식 분석력, 다양한 방식으로의 문제해결능력, 뛰어난 창의력 등을 구비하고 있는 인력을 말한다.

평가기준: 지식·정보화 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갖추어야 할 인재요건들을 가능한 적절하면서도 다양하게 기술하는 경우 10점의 배점이 이루어 질 수 있다.

3. 예시답안

“지식·정보사회에서 지식과 정보는 고도로 발달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대중의 지식·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이는 생산 효율성 증대, 국가 간 경제교류 증대 쪽으로 나아가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의 시장경제로 이끈다.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이런 특징이 산업사회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의 창출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의 이익창출과 구성원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대시킬 것이다. 반면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지식·정보가 지역이나 계층 간에 따라 차별적으로 주어질 것이기에 빈부격차의 확대, 대량 실업, 시장·국가 간 무역 격차로 나타나 경제예속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다양한 부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즉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현실감각, 논리적 분석력, 문제해결능력, 뛰어난 창의력 등이 인재의 자격으로써 요구된다.”

[문제 2]

1. 출제의도

본 문제는 인간의 생리학적인 감정 표출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면서도 주어진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또는 인위적인 감정 표출의 측면에 대해서도 파악해 봐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제시문 [가]는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 흥분이나 화, 우울 등 다양한 감정의 총위가 생기는데, 이 메커니즘을 알면 이를 조정하여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제시문 [나]와 [다]는 그럼에도 현실에서 발생하는 감정의 극한 지점에선 그것이 조절 불가능하다는 점, 심지어 실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일정한 감정을 느끼는 유사 감정까지 존재함을 언급한다. 그렇다면 이런 생리학적인 이론과 인간학적인 관점을 통합하여 이해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가능성을 타진하여 인간 감정의 표출 문제와 사회 속에서의 인간관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학생들이 고민할 수 있다면, 향후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큰 계기가 될 것이다.

2. 평가기준 및 평가주안점

(제시문 해설)

[가]는 인체에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한 감정이 일어난 메커니즘을 설명한 글이다. 뇌에 존재하는 신경세포 세로토닌이 자극을 받아 말단 신경으로 이동하면서 감정이 분출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로토닌 신경세포는 그 자체로 조절 장치를 갖고 있어서 그 분출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를 지나치게 억제하면 도리어 화를 내거나 우울해지는 등 감정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결국 이런 조절의 메커니즘을 잘 알면 사람은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신경 세포의 과도한 분출과 지나친 억제는 흥분과 우울이라는 감정의 고저를 항상 경계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나]는 연암 박지원의 글로, 사람이 울 수밖에 없는 감정이나 상황을 ‘희로애락애오욕’이라는 칠정(七情)에 연결시켜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우는 행위는 슬픔[哀]에 기인한다고 생각하는데, 박지원은 슬픔만이 아니라 기쁨, 노여움, 즐거움, 사랑, 미움, 욕심 등의 감정에서도 그 정도가 극에 달하면 울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슬픔을 포함한 인간의 칠정의 감정은 그 지극하고 참다운 느낌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다 같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이는 인간의 감정 표출의 근원적인 물음이자, 새로운 이해의 지평을 보여준다.

[다]는 인간의 감정이 현실이 아닌 가상의 상황에선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을 따진 논란한

내용이다. 논자는 인간의 감정은 감정의 대상이 실재한다고 믿을 때에만 느낄 수 있다는 전제에서 공포 영화나 허구의 괴물에 대해 두려워하는 이유를 제시한다. 이에 대해 아이들의 소꿉장난을 예로 든다. 이 ‘믿는 척하기 놀이’는 소설이나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감정과 유사하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허구적 대상에 대해서도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느낌은 진정한 감정이 아니고 ‘유사 감정’이다. 인간의 감정의 표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기한 것이다.

(평가기준 및 주안점)

본 문항은 총 30점으로, 제시문 [가]를 요약하는데 10점, [나]와 [다]를 비교하여 서술하는데 20점을 배정하였다.

- 이상적인 답안은 제시문 [가]의 감정 표출과 억제의 생리학적 메커니즘을 적절하게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나]와 [다], 즉 현실과 가상의 상황에서 인간의 감정 표출이 다양한 국면으로 발생하는 면모를 상호 비교하면 서술하는 것이다.
- 다만 제시문 [가]는 인간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 방점이 놓인데 반해, 제시문 [나]와 [다]는 현실과 비현실에서의 감정의 표출에 주안점이 있으므로, 이 점이 먼저 착안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시문 [나]와 [다]의 참된 감정과 유사 감정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따라서 제시문 [나]와 [다]는 인간 감정 조절 능력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감정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제시문 [나]는 지극한 감정의 표출을 강조하면서 억지 감정을 경계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제시문 [다]는 이런 참다운, 또는 불가피한 감정의 분출이 아닌 인간의 또다른 감정선으로 가상을 통한 느낌도 있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나]는 [다]의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구분점이 될 수 있다. 이 점이 잘 드러나게 하는데 초점이 있다.
- 이에 따라 앞의 조건을 다 충족하면 최상급(30점)이며, 제시문 [가] 요약과 제시문 [나],[다]의 비교 서술의 미흡성에 따라 상급(25점), 중급(20), 하급(15점 이하) 등으로 평가하기로 한다.

[문제 3]

1. 출제의도

본 문제는 최근 대규모의 관중이 시청한 영화 ‘명량’을 통해 역사의 허구성과 역사적 사실 관계를 도출해보려는 의도를 갖고 출제하였다. 과연 역사적 진실은 대중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 위해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인지, 아니면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보자는 의도로 구성되었다.

본 문제에 제시된 지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와 조선왕조실록 등의 사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경우 제시문의 내용을 이미 학습했거나, 학습하지 않은 경우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정하여 교육과정의 정상화에 일정부분 기여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본 문항의 출제유형은 학생들이 역사 인식을 제고하고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해 우선 역사적 맥락에서 이를 이해하고, 역사 사실의 변형이 역사 교육에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고, 그 관계를 되새겨 보자는 의도에서 이해력, 분석력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논술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까지 평가하고자 했다.

2. 평가기준 및 평가주안점

(제시문 분석)

[가]는 서울신문의 칼럼으로, 영화 ‘명량’의 제작자들이 배설을 이순신을 위해하는 인물로 그렸다고 하여 배설 문중으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발췌한 임란 관련 글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자 선조 임금이 피난하는 위급한 상황 하에서 이순신이 거느리는 수군이 명량 등의 해전에서 일본에게 승리를 거두었다는 내용이다.

[다]는 임란 당시 활약한 이순신의 모습과 영화 ‘명량’에서 악인으로 그려진 배설을 그려낼 수 있는 자료를 『난중일기』,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 발췌하여 제시하였다.

[라]는 역사가가 역사 서적을 다루는 경우 유념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역사가는 하나의 사관만으로 역사를 다루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마]는 학교에서 역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TV 사극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 역사를 왜곡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기준 및 평가주안점)

본 문항은 총 40이 배정되어 있으며, 질문은 2가지로 구성되어 영화 ‘명량’의 허구성을 추론하는 문제는 20점을, 역사의 현실과 해석 관계를 제시하는 문제는 20점을 기준으로 작성했다.

추론문제(20점): 제시문 [가], [나], [다]에 의거하여 영화 ‘명량’의 허구성을 추론한다.

제시문 [가]: 영화 ‘명량’에서 배설이 이순신을 암살하려고 시도하고, 거북선을 불태우고 혼자 쪽배를 타고 도망치다 화살에 맞아 죽는 것으로 그려졌다.

제시문 [나]: 임란 때 이순신이 명량에서 일본군에게 대승을 거두었고, 이를 계기로 일본군이 물러갔다는 내용이다.

제시문 [다]: 이순신이 12척의 배로 일본을 막는 정황 사료, 배설이 발탁될 만한 인물이었다는 점을 제시한 사료, 배설이 이순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도망을 쳐 처벌받게 되는 사료, 증조판서에 증직된 사료가 제시되었다.

평가기준: 각각의 제시문들을 적합하게 이해하고 배설이 영화 ‘명량’에서 악인으로 그려진 것이 타당하였는가의 여부를 추론하는 경우 20점까지 배점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 질문의 난이도는 보통이나 수험생들이 제시문 [다]를 정확하게 읽어내는가에 관건이 달려 있다고 판단하여 학생들을 차별화 할 수 있는 지문으로 생각하고 있다.

논술문제(20점): 제시문 [라],[마]에 의거하여 영화 ‘명량’에 있어서의 역사 사실과 해석의 관계를 논술하라고 제시하였기에 그 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질 수 있다.

1. 역사 사료는 정확하게 대중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보는 경우

일반적으로 역사는 과거 사실과 그에 대한 해석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역사는 주어진 사료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이를 근거로 역사가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재구성한 해석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사실은 역사 해석의 기본이다. 그러나 영화는 사료의 가공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달되어 그 영화의 내용이 역사 ‘현실’로 되어 버리는 경향이 강하다. 영화가 끝나고 현실로 돌아오면 영화의 허구성을 부정하겠지만, 영화의 최면에 걸려 있을 때 관객들은 자타공인의 신문이나 TV 매체를 믿어버리듯 영화의 현실성에 함몰되고 만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역사가는 영화에 내재된 허구성을 늘 의심해야 한다. 대중들이 한번쯤은 접했을 역사적 인물에 대한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우리들은 리얼리즘에 대한 우리 자신의 감각이 얼마나 주관적이거나 상대적인지를 깨닫게 된다. 작가나 영화감독은 단지 하나의 사료를 근거로 문학적인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역사의 사실과 배치되는 행위로 관객의 시선을 오도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해석할 때는 개관적인 태도와 사실의 올바른 이해가 중요하다.

2.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영화의 허구적 표현에 대한 수용 태도에 대하여 논하시오.

영화나 TV 매체에서 펼쳐지는 사극은 관객이나 시청자들의 역사 지식과 역사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은 부정하기 힘들다.

우리들은 특정한 사실에 대해 역사 해석이 달라졌다거나 언론의 관점에서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역사가들은 역사는 주어진 사료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이를 근거로 역사가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재구성한 해석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렇지만 역사가 내린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료 그 자체가 모든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일례로 다이아몬드 원석이 발견되자마자 그 원석은 가공된 보석으로 다시 태어남으로써 가치가 인정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실도 어느 정도 가공되어 대중들에게 소개될 때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영화나 TV는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정착되었다. 우리 시청자들은 사극을 보면서 그것이 모두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영화의 설정은 시청자를 TV에 몰입시키기 위한 장치라고 여긴다.

행여 역사 왜곡이라는 부분이 방영되면 TV나 신문 등의 매체에서 곧바로 그 잘못을 거론하기에 대중들이 제자작의 의도대로 역사 왜곡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평가기준: 지문 사료 속에 담겨 있는 이순신과 배설이라는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한 위에서 영화 ‘명량’에 내재되어 있는 허구성을 충분히 인식한 위에서 역사 사실의 실재와 해석에 대해 그 이유를 논리정연하게 작성하는 경우 20점까지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논리성이 부족한 경우는 감정 요인이 클 것이며, 적절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경우 추가적인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 * 질문의 난이도는 보통이라고 보이나, 지문 [다]에서 제시한 사료의 의미를 찾아내 영화 '명량'을 제대로 해석하는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